

기초 전자재 - 뚜렷한 호재 없어 전 품목 수요 줄어들 듯

- 철근 800만t · 시멘트 4,400만t 등 금년 대비 2~4% 줄어, 레미콘은 3년 연속 감소 예상 -

전 병 수 | 건설경제 기술자재팀장

수요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자재시장이 공공 부문에 의존하는 가운데 철근, 시멘트 등 내년도 건설자재 수요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는 데다 돌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품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고강도 콘크리트(PHC) 파이프 등 기초 자재의 경우 호재가 없어 감소세가 불가피하다. 특히, 민수 시장의 수요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재가 없어서 못 파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사 등 수요자들은 내년에 자재의 수급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며 구매 정책을 펴야 한다.

뚜렷한 호재 안 보여

전자재시장은 건설시장과 연동된다. 건설시장을 둘러싼 안팎의 환경을 보면 뚜렷한 호재를 찾아보기 힘

들다. 우선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는 하나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 회복 등으로 1%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주택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경제 사정도 올해보다는 나아지나 회복세는 상당히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은 새로 들어서는 지도부가 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은 7~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 원자재는 생산 및 재고가 늘어나 거래 가격은 올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올 겨울에도 이상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기상 예보를 감안하면 유연탄 등의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 경우 가격이 폭등해 철강 및 시멘트 업체들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 전자재가

특집 2013년 건설경기 전망

격 분쟁의 불씨가 될 우려도 있다.

국내 건설산업 환경도 크게 좋아진 것이 없다.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업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올해의 건설시장 성장률이 -0.2~ -0.5%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건설경기가 이 정도를 유지해 왔던 것도 공공부문의 물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2~3.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낮은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호전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의 22조 4,144억원에 비해 4.2% 늘어난 23조 3,539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SOC 투자가 22조 7,852억원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징은 자재 수요가 많은 건축보다는 토목부문의 투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내년에는 민간부문 투자가 감소하며 민수 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재업체의 현금성 결제 요구 거셀 듯

올해의 경우 지난 4월에 총선을 치른 데 이어 12월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변수가 되지 못했다. 건설 관련 공약에 따른 수요가 거의 없었다. 내년에 주시해야 할 시장의 변수는 부실 건설사 처리 문제다. 중견급 이상의 건설사들이 또다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자재시장에는 파장

이 불가피하다.

극동건설의 사례처럼 자재 납품업체들이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며 건설사와 자재업체 간 관계는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실의 위험성이 노출되거나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자재업체들이 선별적인 공급에 나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공급을 중단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자재업체들은 현금성 결제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어음의 결제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동시에 '부실 건설사'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를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논리 대 원가 논리 논쟁도

이런 환경 속에서는 건설사와 자재업체들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자재업체들의 공급 능력이 수요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지만 제강사와 시멘트사, 레미콘사 등은 가격 문제를 놓고 언제든지 건설사와 충돌할 수가 있다.

건설사들의 시장 논리와 자재업체들의 원가 논리가 부딪치며 파열음을 낼 수도 있다. 건설사들은 수요가 줄고 공급은 넘치는 시장 상황에서 자재업체들을 압박하고, 자재업체들은 원가 논리를 고수하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지적인 공급 중단 등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혼합 시멘트 사용량 증가 예상

시멘트와 레미콘, 철근,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등의 내년 수요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은 10% 이상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멘트 등

나머지 품목은 감소폭이 1~2%에 그치며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의 경우 올해 수요는 작년보다 2% 가량 증가한 4,510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내수는 3,251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출하량 증가가 둔화돼 9월에는 1.2% 감소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내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시멘트 수요는 올해보다 1.5% 가량 감소한 4,400만t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과 수입은 큰 변화 없이 올해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의 경우 중국산 등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수입되는 물량 자체가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멘트 수요의 패턴에는 변화가 감지된다.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건설사들의 상황과 친환경 녹색 경영을 강조하는 정부 시책이 맞물려 고로 슬래그 시멘트 등 혼합 시멘트의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형 레미콘사 물량 기근에 시달릴 듯

레미콘은 올해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적은 1억 700만m³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수요 역시 1억m³ 안팎에서 물량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시공 자재 직접조달제도에 따라 중소 업체들은 공공부문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으나 민수시장에만 의존해야 하는 대기업들은 물량 기근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의 올해 수요는 작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510만여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출하된 물량은 409만t으로 작

2013년 주요 건설 자재 수급 전망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철근(만t)	833	830	800
시멘트(만t)	4,460	4,510	4,400
레미콘(만m³)	11,200	10,700	10,000
PHC 파일(만t)	422	510	460

주 : 2012년 및 2013년은 추정치임.

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4.6%나 증가했다. 아파트, 주상복합 등 건축물용 수요보다는 당진의 현대제철 등 플랜트용과 세종 신도시, 지방 혁신도시 등의 기초공사용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는 4/4분기 들어서면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수요는 올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460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말뚝의 대구경화 추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주력 품목의 구경이 450mm에서 500mm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선단보강 파일과 대구경 파일 간의 판매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근, 수출 확대로 활로 모색

철근 수요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공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보다는 철골조 건물의 신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철근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한 830만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져 내년 수요는 올해보다 약 4% 감소한 800만t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대제철을 비롯한 동국제강 등 철근 생산업체들은 중동이나 동남아, 미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CERIK